

한국 양계산업의 살아 남는 길 (1)

순서

I. 머리말

II. 개방경제와 한국농업의 진로

III. 양계산업의 규모경제

박진환
농협대학 명예교수

I. 머리말

우리나라 경제가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해 갈수록 우리경제는 국제화되고 개방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같은 개방화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이 해외시장으로 수출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외국농산물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의 국제경쟁력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 중에는 국제경쟁력이 비교적 강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약한 것도 있다. 한국은 인구에 비해 국토면적이 좁은 나라로써 땅값이 아주 비싼 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중 일정한 금액의 영농 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많은 면적의 농토를 경작해야 하는 경종부문의 국제경쟁력은 약한 편이고 좁은 면적의 땅에서도 비교적 높은 영농소득을 얻을 수 있는 영농부문, 예컨대 원예농업은 국제경쟁력이 강한 부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축산업 중에서도 많은 양의 조사료를 필요로 하는 초식동물, 예컨대 쇠고기 생산의 국제경쟁력은 약한 편이지만 곡류사료를 싼 값으로 수입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양계와 양돈의 국제경쟁력은 비교적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의 몬순기후권에 놓여있는 우리나라 농업은 옛부터 미맥 중심의 경종농업을 주로 해 왔었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도시화되고 공업화되는 과정에서 경종농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이 나타남으로써 우리 농업은 지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경종농업중 벼농사를 제외한 보리, 밀, 잡곡, 서류, 두류, 그리고 면화 등의 재배면적은 급격히 감소됨으로써 소멸되다시피 하고 있다.

경종농업과는 달리 축산부문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값싼 사료에 의존할 수 있음으로써 높은 성장을 해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농후사료로 사육되는 양계와 양돈은 급속도로 전업화의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1980년대 말기에 와서 국가간의 농산물의

무역 자유화를 이루기 위한 UR 농산물 협상이 진전되어 감에 따라 한국농업은 일찌기 경험하지 못했던 시련과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농산물시장을 개방함에 있어서 우선 국제경쟁력이 아예 없는 품목부터 먼저 개방하고 그 다음으로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을 개방하고 마지막으로 국제경쟁력은 약하지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꼭 지켜야 할 부문, 예컨대 벼농사 만은 시장개방에서 예외 품목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을 내세우고 점진적인 개방을 진행시키고 있다.

축산물 중에서는 계란과 닭고기 생산부문은 비교적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개방일정이 앞당겨질 품목으로 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양계산업은 다른 부문에 비해 일찍 근대화되었기 때문에 시장개방의 시련도 먼저 맞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닭고기와 계란의 국내시장 개방의 시기가 가까워옴에 따라 양계업계는 과연 우리가 국제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닭고기와 계란시장의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들의 지혜와 노력이 긴급한 당면과제로 되고 있다.

필자는 양계부문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농업 경제학을 공부해 온 사람으로써 평소에 우리나라의 양계산업만은 개방경제 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왔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은 살아남을 수 있고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필자의 생각을 다음순서로 서술해 본다.

1. 우리 경제가 개방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국농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2. 규모경제(대규모경영의 유리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양계산업은 다른 축산부문과 어떻게 다른가?

3. 양계산업의 근대화의 역사가 아직도 짧은 한국이 선진국의 양계산업과 경쟁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II. 개방경제와 한국농업의 진로

개방경제하의 한국농업이 나아갈 길을 찾는데 있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중요한 경제적 결정요인으로 된다고 보고 있다. 즉 (a) 농지가격, (b) 농촌노임, (c) 수송거리 (d) 소비자들의 기호가 그것이다. 이들에 대해 차례로 설명하면서 양계산업은 경쟁력강화에 있어서 다른 부문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밝히게 된다.

1. 농지가격

한국의 농지가격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으며 한국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지금의 지가는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한국의 농업은 땅값이 높은 상황에 알맞는 작물이나 가축을 선택해야 한다.

옛부터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대단히 높은 나라로서 농지값이 비싸 농민들은 자기 땅을 소유하기 매우 힘들었다.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나라가 가난한 농업의 나라로부터 도시화 되고 공업화된 산업사회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지가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농촌지역에서도

농지가격이 농지의 생산성보다 더 빨리 상승함으로써 농민들이 규모확대를 위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타당성이 적어져 가고 있다.

여기에서 지난 40여년 동안에 한국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류의 내용을 알아본다. 우리나라 농업 사상 외국산 곡류가 대량으로 수입되기 시작한 것은 2차대전 이후의 일이며, 1950년의 6·25 전쟁이 그 계기가 되었다. 전쟁에 시달린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의 원조로 많은 양의 밀이 도입되었다. 밀 수입으로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이 크게 촉진되었으며 밀기울은 모자라는 가축사료를 보충하는데 기여했다.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경제적 근대화로 가축사료와 식용유원료 등으로 옥수수과 콩의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밀, 옥수수, 콩 등 곡류의 수입량은 1950년대는 연간 약 50만톤에 지나지 않던 것이 근년에 와서는 연간 1,000만톤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것은 한국농업의 연간 쌀 생산량인 55만톤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양이다. 이에 따라 곡류의 자급율은 40% 이하로 떨어지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21세기에든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한국은 국제시장에 있어서 곡류의 중요한 수입국의 하나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료용 곡류의 수입이 급속도로 늘어난 근원적인 이유는 한국은 땅값이 비싸 곡류사료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보다는 수입하는 것이 훨씬 값싸기 때문이었다.

축산물 중에서도 특히 닭고기와 계란생산에 있어서는 생산비의 대부분이 사료비가 차지하게 된다. 한국의 양계산업은 곡류사료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시장의

곡류사료 가격의 안정이 대단히 중요한 요건으로 된다.

① 국제시장의 옥수수 가격

지난 30여년을 되돌아 볼 때 국제시장의 옥수수가격은 비교적 안정되어 왔으며 그것은 한국의 양계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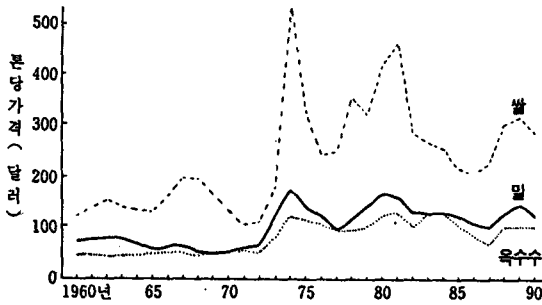
그림1은 1960~1990년 사이의 국제시장의 옥수수 톤당 가격의 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톤당 50달러를 약간 넘던 것이 중반기 이후에는 100달러를 약간 초과하는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밀의 국제가격도 옥수수와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다만 쌀의 경우는 쌀값 파동이 격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쌀은 아시아의 몬순지대에서 세계쌀 총 생산량의 92%가 생산되고 있어 몬순계절의 기상이변으로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을 때는 한발의 피해로 쌀생산이 감소됨으로써 국제시장의 쌀값파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쌀시장의 개방만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리고 앞날의 국제 옥수수시장은 지난 날의 그것처럼 비교적 안정된 시장으로 될 것으로 본다. 이것이 곧 한국 양계산업의 밝은 전망을 내다보는 외부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환율과 국내 옥수수가격

그림1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국제시장의 옥수수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더라도 환율의 변동에 따라 국내 옥수수값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국내 물가의 상승율이 높아 원화가



1/ 쌀값은 태국쌀(싸래기 10%)
 2/ 밀과 옥수수값은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가격
 3/ 자료; 小田敏一郎; 世界の米, 農文協, P. 47

(그림1) 쌀, 밀, 옥수수의 국제가격 동향의 비교 (1960~1990)

평가절하됨으로써 1달러가 50원과 교환되던 것이 1,000원과 교환되는 경우 톤당 100달러 하는 옥수수의 국내가격은 5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비싸진다.

사료값이 두배로 오름으로써 닭고기와 계란 값도 그만큼 오르게 된다. 이러한 경우 옥수수를 수출하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닭고기와 계란 값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한국 양계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그만큼 떨어진다.

그렇지만 그동안 한국의 양계산업은 문호를 닫은 상태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인플레이 경제하에서 국제경쟁력은 떨어졌어도 좁은 국내 시장을 상대로 호황을 누린 때도 있었고 공급 과잉을 겪기도 하면서 장족의 발전을 해 왔다.

그러나 국내 양계시장이 개방되는 날에는 인플레이 경제하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양계산업과 사료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외국에서 생산된 양계생산물들이 값싸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양계시장의 개방에 앞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내물가가 안정됨으로써 원화의 평가절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만 국제시장의 값싼 옥수수가 그대로 국내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따라서 양계업자들은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이웃나라 일본과 대만도 한국과 같이 인구에 비해 국토면적이 비좁아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땅값이 너무 높아져 곡류사료를 수입하여 양계산업이 발전되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러나 이들 두나라의 경우는 무역흑자가 너무 많아져 일본돈과 대만돈이 평가절상이 계속되고 있다.

표1은 일본의 엔화와 미국달러와의 환율을 나타낸다. 1985년에서 1993년 사이에 일본의 엔화값이 2.4배로 절상되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1985년에는 일본도 1,000엔은 미국돈 4달러와 교환되던 것이 1990년에는 일본돈 1,000엔은 미국돈 6.9달러와 교환되었고 다시 1993년 현재로는 일본돈 1,000엔은 미국돈 9.5달러와 교환되었다.

표1. 일본엔화와 미국달러와의 환율

년도	불/1,000엔 (달러)	년도	불/1,000엔 (달러)
1985	4.0	1990	6.9
1986	6.0	1991	7.4
1987	6.9	1992	7.9
1988	7.8	1993	9.5
1989	7.2		

이와 같이 엔화가 절상됨으로써 이른바 엔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국제시장의 옥수수값은 변동이 없다고 치더라도 일본의 국내시장의 옥수수값은 크게 싸진다. 예컨대 국제시장의 옥수수값이 100달러로 변동이 없다고 할 때 1985년의 일본 국내 옥수수값은 25,000엔이던 것이 1990년에는 14,500엔으로 낮아지고

다시 1993년에는 10,500엔으로 낮아짐으로써 일본 양계업자들의 사료비가 1985년에는 1993년 사이에 1/2 이하로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엔고 현상으로 사료비가 1/2로 낮아지면 닭고기와 계란도 그만큼 값싸게 공급될 수 있게 된다. 거기에서 한국의 양계시장이 개방되는 경우 한국에도 수출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경제가 회복되어 무역흑자가 커짐으로써 한국돈이 평가절상되는 경우 국내 사료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2. 농촌노임

1960년대만 해도 농촌에는 잠재실업인구가 많아 낮은 노임에도 일할 사람이 많았다. 이에 따라 땅이 귀한 우리나라는 한치의 땅도 놀리지 않게 노동집약적인 영농이 권장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부터 농촌인력의 도시 진출로 농촌노임이 농업노동의 생산성을 앞질러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에 의한 영농은 점점 어렵게 되고 있다. 필자의 개인적인 관찰에 의하면 1991년 여름 현재의 일본농촌의 일당 노임은 5,000엔 정도였다. 이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5,000원에서 30,000원이 된다. 일본농촌에는 겸업농가들이 많아 농번기에 일손을 구하기가 한국보다도 쉬운 편이었다. 농촌의 인력난은 일본농촌보다 한국이 더 심각한 것으로 보였다.

1992년 9월에 필자는 태국 북부지방 농촌을 답사하면서 그곳의 일당 노임이 우리나라돈으로 2,000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농촌노임의 1/10에 해당된다.

또한 중국의 농촌노임은 태국의 그것보다도 낮으며 하루품삿이 우리 돈으로 1,000원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는 중국정부의 쌀생산비 조사농가들의 일당 노임을 달러로 환산한 것이다. 이를 보면 1984~1987년 사이에는 일당 2원이던 것이 1990년에는 4.5원으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공식 환율에 의해 달러로 계산하면 1달러 미만이던 것이 1달러로 높아진 셈이다.

표2. 중국의 벼농사에 투입된 노동의 일당 노임(1984~1990)

년도	호남성 원·(불)	절강성 원·(불)	감소성 원·(불)	안징성 원·(불)	전 국 원·(불)
1984	1.9(0.8)	1.9(0.8)	1.9(0.8)	1.9(0.8)	1.9(0.8)
1986	1.9(0.5)	1.9(0.5)	1.9(0.5)	1.9(0.5)	2.0(0.6)
1987	1.9(0.5)	1.9(0.5)	1.9(0.5)	1.9(0.5)	2.0(0.5)
1988	3.3(0.9)	3.5(0.9)	3.3(0.9)	-	3.1(0.8)
1989	4.1(1.1)	4.0(1.1)	4.4(1.2)	3.1(0.8)	4.1(1.1)
1990	4.6(1.0)	4.7(1.0)	5.1(1.0)	3.5(0.7)	4.5(0.9)

자료; USDA, ERS, Agr. Statistics of China

그런데 농산물의 교역이 없었던 지날 날에는 다른 나라의 농촌노임이 우리나라의 그것에 비해 높거나 낮은 것이 우리 농민들의 영농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국제화되고 국가간의 교역이 늘어남에 따라 노임이 짠 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한국시장에 값싸게 들어오고 있다. 중국산 농산물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에 대응함에 있어서는 수입금지나 관세장벽으로 막아내는 한편 우리나라의 영농이 기계화되고 자동화됨으로써 인력난을 해결하는 동시에 고품질의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길을 선택해야만 한다.

그런데 농업생산부문 중에서도 양계산업은 생산금액당 노동투입이 가장 적은 부문에 속한다. 다시 말하면 양계산업은 노동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농촌노동력의 부족으로 노임이 높은 상황에서는 양계산업은 다른 농업부문보다 비교적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땅값이 비싸고 노임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농업은 토지와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농업에서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농업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고도산업사회로 발전해 갈수록 땅과 노동은 공급제한으로 그 값이 올라가지만 자본과 기술은 공급이 늘어남으로써 그 값이 상대적으로 싸지게 된다. 이러한 전망에서 보았을 때 양계산업은 다른 농업부문에 비해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수송거리

그동안 한국시장에 곡류와 육류를 수출해 온 나라들은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이른바 농산물 수출국들이었다. 이들 나라들은 땅값이 싸기 때문에 이에 알맞는 곡류나 육류를 생산하여 값싸게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농민들은 원거리를 수송하면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수송비가 높아지는 농산물을 선택하는 것이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된다.

원거리 수송을 하면 선도가 떨어지고 수송비가 높아지는 농산물은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져 한국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만

들 때는 원료값이 높아 수입되는 가공식품과의 가격경쟁에 있어서 불리하게 된다. 이것은 곧 우리나라 농민들은 소비자들을 위해 신선하고 고품질의 식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수송수단과 냉장시설이 현대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계란과 닭고기는 원거리 수송에 따르는 수송비가 높아 양계산업은 소비지에 가까운 곳에서 발달되어 왔다. 그러나 수송수단의 발달과 냉장시설의 보급으로 닭고기와 계란의 수송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계란의 경우는 태평양이나 인도양을 건너서 한국까지 수송하는데 따르는 수송비가 너무 높다. 다만 닭고기의 경우는 현대식 냉장시설의 발달로 원거리 수송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의 양계시장이 개방되는 경우 외국산 닭고기가 값싸게 들어옴으로써 한국의 육계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에는 비단 양계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의 다른 부문들도 인플레이경제하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농산물값이 떨어질 때의 경영 합리화 경험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산물값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지는 상황에서 생산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원거리 수송을 통하여 들어오게 될 수입닭고기와 경쟁하는 데는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높여 소비자들이 값이 좀 비싸더라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닭고기를 선호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데다가 중국의 옥수수값이 미국의 옥수수값보다도 싸기 때문에 한국의 양계시장이 개방되는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는 닭고기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중국산 닭고기는 값이 싼 대신 품질에 있어서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닭고기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가격경쟁의 불리함을 극복해야만 할 것이다.

표3. 중국의 옥수수, 닭고기, 계란생산의 농업 지역별 분포(1990년)

농업지역	인구비율 (%)	닭 고 기 (%)	계 란 (%)	옥 수 수 (%)
북동	8.8	9.0	12.7	34.5
북 (1)	24.7	16.9	37.2	35.2
북서	8.9	2.0	6.2	11.2
계	42.4	27.9	56.1	80.9
동 (2)	15.7	24.8	19.7	4.1
중앙	13.5	10.1	12.2	1.5
남	12.5	24.9	5.0	1.4
남서	15.8	12.3	7.1	12.1
계	100.0	100.0	100.0	100.0
총수	11.3억	320만톤	795만톤	9,700만톤

(1) 북경시, 천진시, 산둥성, 허북성, 허남성, 산서성이 포함됨.

(2) 상해시, 강소성, 절강성, 안징성이 포함됨.

자료 : USDA, ERS, Agr. of Statistics of China

한국의 양계업자들에게는 미국의 옥수수와 양계산업에 관한 정보는 비교적 많아도 중국의 사료생산이나 양계산업에 관한 정보는 제한되어 있다. 표3은 중국에서 옥수수가 생산되는 지역과 닭고기와 계란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관한 개괄적인 정보를 보여준다.

이를 보면 중국의 옥수수생산은 약 1억톤에 가까우며 그것의 70%는 황하유역인 북부농업 지역과 만주지방인 북동부 농업지역(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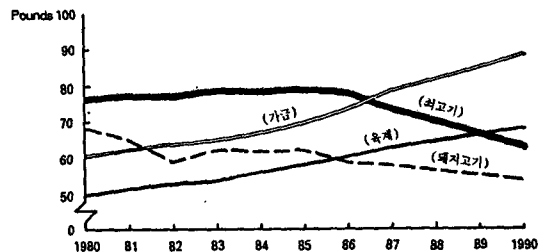
란생산의 약 50%는 황하유역과 만주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한편 닭고기는 양자강 하구의 상해시 주변과 남쪽의 황동성 등지에서 약 50%가 생산되고 있다.

근년에 와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 등에 옥수수를 미국산 옥수수보다 값싸게 수출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가 국내수요를 충족하고 남아 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옥수수 주산지의 성행 정부가 필요한 외화를 얻기 위해 수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닭고기와 계란의 주산지에서도 성정부의 외화 획득을 높이기 위해 닭고기와 계란값으로 수출하려고 할 것이다.

4. 건강과 식생활

이웃나라 일본인들의 평균수명이 가장 높은 원인에 관하여 미국의 의과대학 교수팀들이 연구한 결과가 1970년대 말에 발표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일본인들의 식생활에 있어서 채식과 어류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같은 사실들이 밝혀짐에 따라 육식을 하는 서구사람들도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려는 경향



자료 : 미국 브로일러 생산자협회

(그림2) 미국인들의 주요 축산물(육류) 1인당 소비량 추세와 그 전망

이 나타나고 있으며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한 식품개발이 촉진되고 있다. 예컨대 육류의 소비에 있어서도 쇠고기와 같은 붉은 고기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지만 닭고기와 같은 색깔이 흰 고기는 쇠고기보다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닭고기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닭고기의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는 바쁜 현대인의 생활에 있어서 튀김이나 전기구이로 된 이른바 속성요리 패스트 푸드에 알맞다는 점도 있다고 한다.

그림2는 미국 국민들의 1인당 육류소비량에 있어서 쇠고기는 감소되는 대신 닭고기는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쇠고기의 1인당 소비량은 1980년에는 77파운드이던 것이 1990년에는 65파운드로 감소되고 닭고기의 1인당 소비량은 1990년의 60파운드에서 1990년에는 70파운드로 늘어남으로써 닭고기소비가 쇠고기보다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시사하는 것은 국민경제가 고도산업사회로 발전해 갈수록 양계사업은 성장율이 높은 산업으로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쇠고기의 5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한국으로 보아서는 양계산업의 성장율이 가장 늦게 나타날 것이 예견된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땅값, 농촌노임, 농산물수출국과 한국사이의 지리적 거리, 그리고 건강을 위한 소비자들의 기호 등을 감안할 때 양계산업에는 넓은 면적의 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동화가 가장 쉬운 농업부문이며, 장거리수송에 따르는 비용이 곡류보다 높게 소요되며, 산업사회로 발달할수록 닭고기와 계란의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빠르게 늘어날 축산물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개방경제가 되더라도 양계산업은 상대적으로 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농업부문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 (양계산업의 규모경제는 다음호에)

자 동 화 설 비

금 이 시 스템 (오거, 체인, 디스크)
 금 수 시 스템 (종형, 일지, 니플)
 환 기 시 스템 (임기, 배기, 클링)
 난 빙 시 스템 (얼퐁기, 육추기)

양 계 유 통

병 이 리 판 매
 닭 출 히

* 건 지 축 산

전북 이리시 동산동 1046-2번지
 TEL : (0653) 842-0255-8
 FAX : (0653) 842-0259